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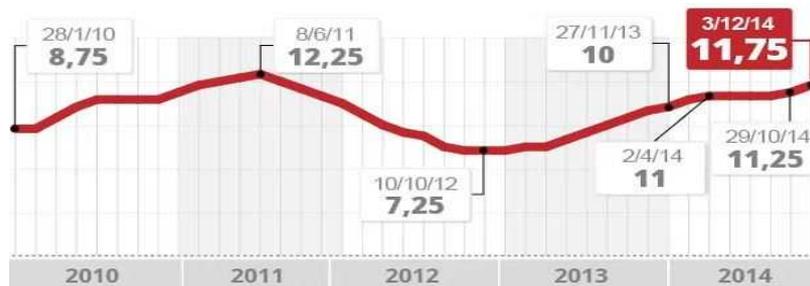
브라질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상과 향후 전망

(‘14. 12. 8)

상파울루사무소

- 브라질 중앙은행 내 통화정책심의회(Copom)는 재무부 장관 교체 이후인 12. 3자 회의를 통하여 기존 11.25%이던 기준금리(Selic)를 50bp 올린 11.75%로 결정

브라질 기준금리 추이



자료 : 브라질 중앙은행

- 금번 Copom은 금리인상안을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으며, 당초 예상됐던 25bp가 아닌 50bp 인상은 최근 물가 상승 추세 및 헤알화 가치 하락에 대한 통화정책당국의 우려와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플레이션 억제와 환율방어에 대한 관리의지를 시사하는 것임.
 - 올해 12월 현재 연간 물가상승률은 연간 목표(4.5%) 뿐만 아니라 최대 허용치(6.5%) 수준을 넘는 6.6%를 기록
 - 브라질 헤알화 역시 대선 이전부터 최근까지 달러대비 지속적으로 약세 추세 (8. 1자 2.26 → 12. 8자 2.59)
- (향후 전망) 추가 금리인상 여부는 연말연시 금융 및 외환시장 동향, 내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일련의 공공요금 인상 등이 변수가 있으나 시장에서는 내년 1. 22자 Copom회의에서 0.25~0.50% 정도 추가 인상하고, 내년 연말까지 약 12~13% 수준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.

○ 국내 요인

- 지우마(Dilma) 제2기 정부 경제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인플레이션 억제, 정부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긴축재정
- 달러의 대외유출로 인한 헤알화 폭락 예연 방지
- 무역수지 적자를 자본수지로 커버해 경상수지를 관리해야하는 필요성 등

○ 외부요인

- 한편 미국의 경제회복으로 금리인상이 전망되면서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달러화 가치 등